

는 운동이었다. 처음엔 한 대학생 동아리가 만든 리본 샘플이 빠른 속도로 퍼지더니 곧 다양한 모양과 문구를 담은 리본들이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되었고, 오프라인 곳곳에서도 많은 이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기원을 상징하며 나부끼게 되었다.

사실 이 노란리본 캠페인은 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들이, 특히 너무나 어린 생명들이 꼭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런 집단적 기원에서는 누구를 향한 기도인지, 기도의 형식은 어떠해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특정 종교의 형식과 내용을 정교하게 따르지도 않는다. 오히려 한 종교의 방식을 채용한다는 건 모두의 마음을 모으려는 취지를 거스르기 쉽다. 가급적이면 어느 종교와의 직, 간접적 관련성은 제거하는 것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 초기에 일부 기독교인이 '종교 혼합주의'와 '주술행위'를 앞세워 신앙인의 동참을 반대한 것은 적절치 못한 대응이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원하는 공동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의를 세우기 위해 선 타인의 엄청난 고통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는 독단적 집단이라는 기존의 낙인을 재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캠페인의 유래를 밝히고 설부른 영적 해석을 경계한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의 노력으로 헤프닝에 그치는 했지만, 개신교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 정서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세월호 침몰사고를 겪으면서 나타난 손석희 현상과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은 한국 사회에도 등장하기 시작한 "시민종교"의 단면을 보여준다. 더 이상 제도종교가 전면에서 사회를 통제할 수 없는 정교분리가 규범화된 현대 세속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종교현상을 "시민종교(civil religion)"라 부른다. 시민종교는 세속사

회가 종교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 제도종교와는 의도적인 거리를 두며 실천하는 종교적 의미의 행위나 의례를 말한다. 제도종교의 힘이 날로 약화되는 시점에, 특히 우리처럼 다종교와 세속주의가 매우 분명한 상황에서 시민종교는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읽어내는 것이 왜 필요할까? 첫째, 세속적 가치와 규범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종교적, 영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날로 위험은 더해져만 가고, 세상이 내세우는 가치와 세계관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나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삶과 죽음, 고통과 희망의 의미에 대한 해석과 예언을 필요로 한다. 비록 대중은 미디어에게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세상의 필요를 확인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크다.

둘째, 이러한 영적 필요와 욕구를 드러내는 이 세상의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그러셨듯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며 동시에 우리가 소통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이 사용하는 언어에 너무도 무관심하고 무지했다. 단지 우리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을 걸었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원망하고 정죄할 뿐이었다. 시민종교는 영적 필요와 욕구를 말하는 세상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과 표현방식, 문법을 이해하지 않고서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사고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가 크게 아파하고 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세상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기독교영화의 르네상스는 오는가?

◎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 리얼리즘에서 판타지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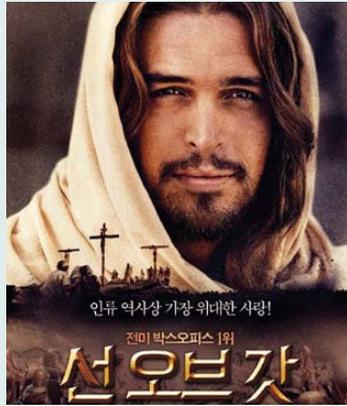
2014년 부활절은 기독교영화로 둘러싸여 있었다. 북한지하교회교인들의 신앙과 고난의 현장을 담은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은 기독교영화계에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사였다. 지난 2월 13일 개봉하여 8주간 전국누적관객수 42만 명을 기록하며 기독교 영화가 그동안의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음을 알렸다. 손익분기점을 30만 명으로 본다는 제작사측의 말을 고려한다면 40만 명을 훌쩍 넘긴 관객 수는 다음 영화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북한인권문제를 다루었다고는 하지만 저예산영화인데다 기독교의 색채가 강한테에도 불구하고 40만 명을 넘긴 일은 한국기독교영화의 지속적인 제작을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이 보낸 사람>은 영화관을 떠난 뒤에도 미처 영화를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개교회를 방문 상영하는 행사를 진행 중에 있다.

〈신이 보낸 사람〉의 뒤를 이어 대런 애로노프스키 감독의 블록버스터 영화 〈노아〉(Noah)와 크리스토퍼 스펜서 감독의 〈선 오브 갓〉(Son of God)이 사순절 기간 중에 개봉되어 기독교계에 뜨거운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노아〉의 경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성경의 인물과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감독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블록버스터 판타지로 본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상업적 성격을 가지고 과도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바람에 성경에서 언급된 기본적인 사실들조차 왜곡했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교회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개봉한 〈선 오브 갓〉은 〈노아〉와는 정반대의 화법을 구사한 전형적인 성서영화라 할 수 있다. 〈노아〉가 작가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면 〈선 오브 갓〉은 작가의 상상력을 최소화하여 성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는 전통적 방식의 성서에 충



실한 영화라 할 수 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그려진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여정을 목격하는 일이란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 성서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부활주일을 목전에 두고 개봉한 이장호 감독의 〈시선〉은 이슬람 반군에 납치된 한국의 선교봉사단이 겪는 배교와 순교의 상황을 사실감 있게 묘사한 영화로 내용이나 감독의 명성 모두에서 무게감이 느껴지는 명작이다. 한국인 선교봉사단의 납치사건이란 교회의 일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일이란 점에서 인권을 다룬 시각을 중심으로 기독교신앙을 애둘러 표현할 만도 하지만 이장호 감독은 정공법을 택했다. 선교현장의 치부를 숨기지도 않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과감하게 드러냈다. 성서에 충실한 예수영화로부터 과도할 만큼의 상상력을 개입시킨 판타지,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와 선교봉사단이 처한 배교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내용과 형식 모두 다양하면서도 도전적인 영화들의 잇따른 개봉은 기독교영화의 부흥을 생각할 수 있는 흥미로운 현상임에 틀림없다.

### 현실성 높은 드라마로 승부하다

지난 몇 년간 기독교영화의 주된 장르는 다큐멘터리였다. 2009년 신현원 감독의 〈소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블랙 가스펠〉에 이르기까지 극장에서 개봉된 기독교영화들은 하나같이 다큐멘터리였다. 다큐멘터리 장르의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좋은 소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기독교 안에서 비교적 제작이 용이한 장르로 인식되어 왔다. 오지에서 현실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도 적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세상을 향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카메라에 담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전, 세상을 향해서는 좋은 기독교 이미지를 형성하여 복음 전파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극영화로 갈 경우 다큐멘터리와는 비교될 만할 만큼의 세밀한 기획과 풍부한 제작능력을 필요로 하기에 쉽게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배우라는 한가지 조건만 놓고 생각하더라도 대중의 인지도가 높고 실력을 겸비하면서도 저예산의 현실을 이해하면서 기독교신앙의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주연급의 연기자를 찾는 일이란 쉽지 않다. 그런데 〈신이 보낸 사람〉이나 〈시선〉 모두 김민권이 오광록 같은 대중에게 익숙하면서도 풍부한 연기 경험을 갖춘 배우들이 주연으로 나선 점은 기독교 극영화의 재건을 가능케 만든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당연한 시대상 높은 소재를 택해서 이야기를 구성한 점은 유명 인물 중심이나 교회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위주로 제작했던 이전의 기독교 극영화하고는 확연히 다른 점이었다. 김진우 감독의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의



경우 북한의 지하교회를 다루면서 신앙과 인권문제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 산속 동굴에 몰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순교자의 모습은 전형적인 기독교 영화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탈북하다 잡혀 처형당한 시체들이 얼어붙은 강가에 뒹굴며 기독교인과 탈북을 시도하다 잡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루는 모습은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를 고발하는 모습으로 비추진다. 이장호 감독의 〈시선〉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선교봉사단이 탈레반에 의해 납치된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일본의 역사소설가인 엔도 슈사쿠의 〈침묵〉에 나오는 배교에 대한 신앙인의 갈등을 집목시킨 영화다. 줄거리는 한국인 선교봉사단의 납치상황을 토대로 진행되지만, 주제는 〈침묵〉에서 성도를 살리기 위해 배교하는 신부에 대한 신앙적 이해를 다루고 있다. 통역을 겸한 현지 선교사 조요한(오광록)은 목사와 장로부부 그리고 네

명의 남녀로 이루어진 선교봉사단의 안내를 맡고 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오지에서 이슬람 반군에 의해 납치되자 죽음의 위협 앞에 선교단원들의 실상과 신앙은 그 밑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유 장로(故 박용식)는 함께 동행한 자신의 부인 송 권사(김민경)에게 평생 폭력을 휘두르는 폭군행세를 해왔음이 밝혀지고 송 권사는 선교여행이 끝나는데로 한국에 돌아가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다. 아내가 있음에도 다른 선교단원과 바람을 피워 임신까지 한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는 것도 납치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화는 현지 선교사 조요한의 과거와 현재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겉으로는 선교사지만 그는 한국에서 온 선교단을 인솔하며 현지식당에서 커미션을 받는 등 적당히 뒷돈을 챙기는데 주저하지 않는 세속적 인물이다. 더군다나 납치 상황에서 그가 이전에 이슬람 반군에 잡힌 경험이 있었고 나아가 기독교를 부인하는 배교자였음이 드러난다.

흔히 기독교영화가 교인들의 좋은 모습만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고 감독의 젊은 시절 보여주었던 사회비판과 풍자의 날카로움이 기독교영화 안에서 새롭게 빛을 발하고 있다.

### 신앙인에게 도전을 주다

북한의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삶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선교영화를 지켜보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혹은 내가 배교와 순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위협에 처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신이 보낸 사람>과 <시선>이 기독교영화로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 관객들의 신앙에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까닭이다.

북한지하교회의 경우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발각될 경우 수용소로 보내져서 잔혹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까닭에 숨죽여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지만, 감시의 시선을 피해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습관화되어 아무런 감동도 없는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으며, 아울러 북한선교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중국과 인접한 두만강 국경지대에 위치한 작은 마을.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 끝에 아내를 잃은 주인공 철호(김인권)는 중국 공안을 피해 골동품을 판 돈으로 자신이 속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탈북시켜 남한으로 갈 계획을 세운다. 그의 마음에는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깊이 박혀 있다. 그러나 지하교회 교인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끝내 국경수비대에 기독교인이라 것이 발각되면서 철호 역시 아내를 따라 순교의 길을 뒤따르고 만다.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린 관객이 극장 문을 나설 때 컷가를 맨다는 질문은 영화 속 대사처럼 “남한은 과연 가나안 땅인가”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탈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여정과 같은 것인가? 우리 중 그 누구도 북한의 지하교인들의 바람대로 남한 땅은 것과 같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천박한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돈과 권력의 이상화에 빠져버린 교회 생각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영화 <시선>은 세 가지의 신앙 모습을 통해 탈레반에게 납치된 선교단원의 특수성이 아무런 위협도 없이 편안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신앙적 깨달음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는 위기와 배교의 신앙이다. 영화가 보여주는 상황처럼 배교를 하지 않는다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위기의 신앙을 말한다. 이슬람 반군이 요구한대로 그들의 지도자가 석방되지 않자 이들은 납치한 교인들을 차례대로 처형하려 한다. 다른 교인을 위해 스스로 죽기를 결심하는 구목사(남동하)의 모습은 아름답다. 목사라고 해서 남을 위해 죽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배교를 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기로 다짐한 우리들이지만 삶의 위기를 핑계로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가슴이 뜨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둘째는 은혜와 구속의 신앙이다. 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기를 결심한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행하는 배교다. 앞의 배교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배교는 철저히 타인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감독은 이를 ‘거룩한 배교’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소설 <침묵>에서 일본 선교사로 온 페레이라 신부는 일본 관원의 어떠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배교를 하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농민들을 구하기 위해 결국 배교를 하고 만다. 이때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침묵은 배교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신부의 배교에 동의하는 하나님의 암묵적 의지라는 해석에 이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성찰에 도달한다. 조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환상가운데서 믿음을 되찾고 배교와 순교를 모두 경험하게 된다.

셋째는 용서와 사랑의 신앙이다. 이 영화의 백미이자 조금 더 세밀한 묘사가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하다. 조요한은 반군의 소년병에게 약속한 대로 앞을 못 보는 어린 여자아이를 한국에 데려가 치료해줄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다. 그리고 그 일이 실행되는 뉘앙스를 풍기며 영화는 끝난다. 일행을 죽음과 고통 속에 빠뜨린 부족의 아이에게 빛을 선물하려는 선교단원의 모습에서 이장호 감독은 한국교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19년 만에 만든 영화 속에는 감독의 인생과 신앙이 사랑과 용서라는 메시지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다.

### 한국기독교영화의 과제

오늘날 기독교영화계의 현실은 기독교영화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아무리 예술성을 갖춘 훌륭한 기독교 영화가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홍보되고 상영될 극장이 있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영화 소비자로서의 관객을 만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 극장의 경우 메이저 영화사에서 제작한 오락

성이 강한 영화가 아니라면 스크린을 전폭적으로 내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신이 내린 사람>이나 <시선> 심지어 <선 오브 갓> 역시 전국적인 배급이라고 말하기 힘들 만큼 일반 영화에 비해 극히 소수의 극장에서만 상영되었고, 그나마도 연속 상영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소위 ‘퐁당 퐁당 상영’이라고 말하는 건너뛰기 시간표를 배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영화만의 일은 아니다. 저예산영화나 독립영화 혹은 예술영화들도 같은 설움을 겪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도 미래의 소망은 밝은 편이다. 영화를 통한 문화사역에 꿈을 가진 사역자들이 기독교영화를 알리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극장은 부활절을 전후로 4월 10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The Bless of God Film Festival(서울극장 기독교 영화 기획전)’을 개최했다. 뮤지컬 공연실황을 담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비롯해서 앞에서 언급한 주요 기독교영화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독교 영화들이 상영관을 얻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크리스천 극장주의 문화선교를 향한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 5월 22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1회 국제사랑영화제 역시 최근 개봉된 기독교영화들을 포함해서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외국의 기독교영화들과 공모전을 통해서 선발된 단편기독교영화들이 상영된다. 기독교 영화의 연이은 개봉에 이어서 이를 기독교문화의 확산으로 연계시키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나타난 것 또한 한국기독교영화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서 보는 일만 남았다.



강진우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이며 영화평론가이다. SFC문화연구소장,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강연과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사역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